

탐방기

(주)스페이스링크

1. 회사 연혁

- 대표자 : 양희식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7-9
경향빌딩 5층(120-712)
- 전 화 : 02)395-2885
- 팩 스 : 02)395-2889
- http : //www.space-link.co.kr
- E-mail : info@space-link.co.kr



양희식 대표이사

주식회사 스페이스링크는 1997년 6월에 설립된 벤처 기업으로서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솔루션 제공 및 위성통신 시스템관련 S/W 및 H/W 서브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창업당시에는 위성통신 및 정보통신 시스템구축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하여 그 기술능력을 인정 받고 있는 핵심전문가 5명이,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내 위성통신 및 정보통신 시스템구축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로 국내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10년 안에 세계시장에서 사업 수해력, 기술능력, 솔루션 제공 능력, 고객 선호도에서 Big 5에 올라설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회사로 성장하자는 야심찬 비

전을 가진 출발이었다.

사업 초기 위성통신 관련시스템구축 사업을 수주하기에는 신설 회사로서 기존 외국업체와 국내 대기업군 소속사의 견제뿐 아니라 실적이나 인지도면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신뢰하는 전문가 및 기간통신 사업자에 힘입어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3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문기술자만 수십 명을 보유한 “우수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소규모 시스템 개발이나 장비 및 부품 공급 정도에 그쳤으나,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신념아래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억원대의 위성 지구국 구축사업을 텐키로 수주 할수 있었으며, 데이콤의 ‘아산 위성지구국 증설사업’, 온세통신의 ‘여주 제3위성지구국 건설사업’, 한국통신의 ‘팬암샛 지구국 건설사업’, ‘아이비샛 멀티미디어 송출 지구국건설’, ‘정부기관 위성 통신시스템 종합감시제어시스템구축’ 등 매 사업마다 회사와 기술진의 명예를 걸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왔다.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외국 선진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0년에 수백억원 대의 정부 ‘위성전파 감시센터’ ‘시스템구축 기술용역 및 현장구축 사업’을 수주하기에 이르렀다. 이 프로젝트는 시스템 및 적용 기술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첨단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동사의 축적된 시스템엔지니어링 Know-How와 사업수행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련 장비제작사들은 동사를 MFC(최우선 선호고객) 조건으로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외국 업체와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Cidera와 같은 IP업체는 한국 및 홍콩과 대만 내의 모든 인프라 구축을 동사에 위탁하여 서

비스영역을 확장하는 등 국내 업체로서는 드물게 해외 시스템 구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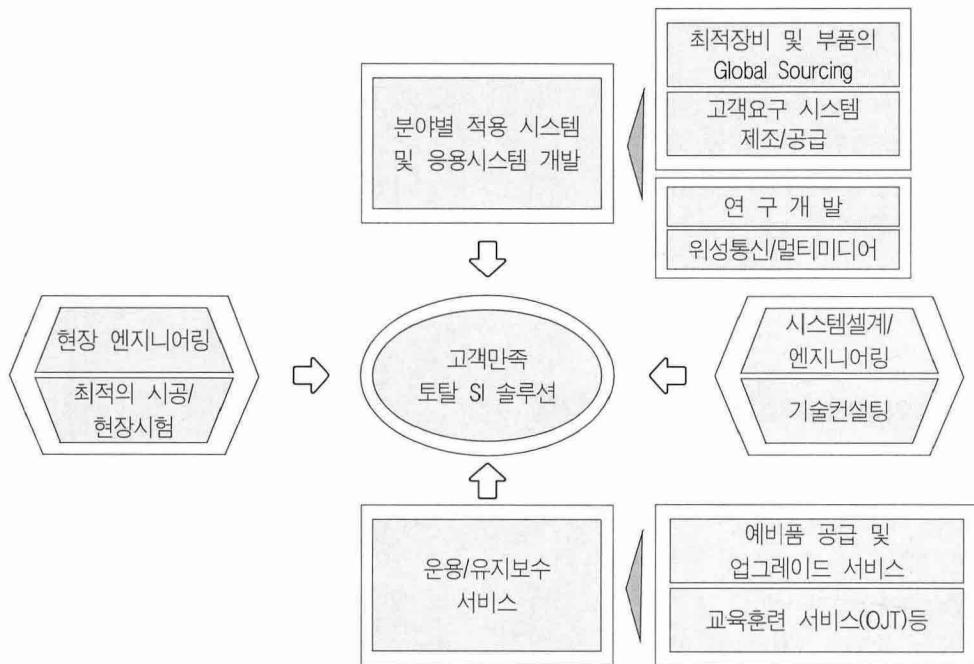
2. 특이한 조직 체계와 우수한 내부역량이 빛어낸 성공 신화

동사는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한 ‘정보통신 기술연구소’와 함께 사업 수행을 위한 IT 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연구소에는 주로 장비, 부품 등 하드웨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 연구실’과 운영 체계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통신망 체계 연구실’ 외에 유·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컨텐츠 개발실’이 있다. 또한 IT 사업 본부에는 시스템 설계 및 설치를 담당하는 ‘SI 사업부’와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신규사업 개발부’가 있다.

이들 조직은 메트릭스 형태로 프로젝트 유형과 기능별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직이 거대해지더라도 팀장과 팀원 간의 연대의식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향후에는 ‘인사 스폰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 어느 한 조직의 중간 간부부터는 부서장 또는 임원이 연대하여 보증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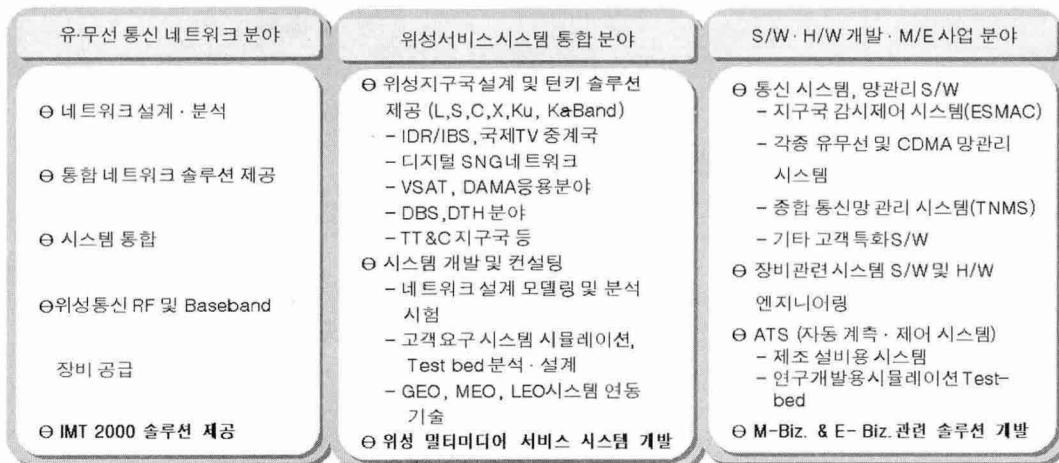
이러한 조직 체계에서 동사의 경쟁력이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사가 회사 규모에 비해 업계에 잘 알려진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위성통신 시스템 사업에 관한 완성도 높은 터키 수행 실적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의 주요 인력은 10~20년 동안 다양한 위성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기반의 고객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최적의



[그림 1] 동사의 사업수행 체계도

탐방기



<표> 동사의 사업 영역

시스템 설계와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시스템 운영상의 원천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외국 기업만이 인정 받는 위성 SI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여겨졌다. 여기에 사업 초기부터 돌발사태에 대비한 24시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사무실 곳곳에 빈 자리가 보이는 것은 정기적으로 고객 및 현장을 방문하여 고객 불만 사항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예방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보수 및 정비 전문 기술자의 현장 파견이나 상주도 가능하다는 귀뜸이 있었다.

3. 산업의 급성장에 대비한 사업구조 확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0년 중 연구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국내 위성방송서비스 시장 규모는 경제 성장 속도, 방송광고 시장 확대, 위성 부가서비스 제공, PPV(Pay Per View) 서비스 제공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평균 9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V(21%)나 라디오(14%), 종합 유선(22%) 등의 방송 시장에 비한다면 가히 폭발적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장비 시장 역시 디지털 방송 기술의 진전과 함께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2000년 후반부터 위성을 통한 멀티미디어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동사의 사업구조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분야, 위성 서비스 시스템 통합 분야, 통신·방송 S/W 및 H/W 개발 분야, 유·무선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뉘어 진다. 위 <표>와 같이 분야마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위성사업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 IMT-2000, M-Biz 및 E-Biz 등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 개발했던 고객 특화된 개별 장비 및 S/W를 통합화하여 범용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1998년에 개발한 위성 통신 및 방송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위성지구국 전용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인 'ESMAC™ (earth station monitoring and control)'을 비롯한 DV MAC™, MNet MAC™, AEMAC™ 등 다양한 MAC 시

리즈와 전파분석시스템인 'RWAS™(radio wave analysis system)'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간통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ESMAC은 위성 지구국 및 기지국 등의 각종 시스템을 자동 원격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화 제품으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 LAN/WAN, TMN 망과의 연동도 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구동이 가능하고, 내재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벤트 로그 및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다. RWAS는 위성지구국 및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 기지국 등에서 신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PC에서 캐리어를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측정 캐리어별로 상·하한 값을 지정하여 지정 값 초과시 자동으로 가시 및 가청 정보를 발생시키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서 및 스크립 차트로 제공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알람 패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비상 사태시 경보를 중요도에 따라 발생 장소 및 원인을 음성 또는 경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미 판매되어 고객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얻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4. 명확한 경영철학과 성공에 대한 확신



▲ (주)스페이스링크 임직원

동사의 양희식 대표이사는 젊은 나이에 비해 산업을 바라보는 눈이 냉철하고 정확한 듯 싶었다. 벤처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경영인으로서 미국 스티븐 스대학교 전기전자석사에 걸맞는 해박한 전문 지식은 물론, 현재와 앞으로의 기술발전 및 변화 추세를 전망하는 그의 혜안과 경영능력이 범상치 않아 보였다.

그의 경영철학 역시 분명하였는데, 바로 '넘버원'이 되는 것이었다. 서비스든 제품이든 수년간 다져온 풍부한 노하우 및 첨단 기술력, 고객의 가치창조, 최고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 주주가치의 극대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상의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통합화의 동반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넘버 원'을 위한 기업 체제의 내실을 기하고, 중기적으로 위성 및 무선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제공의 선두업체로 부상하며, 장기적으로 무선 시장 주도권 장악 및 기술 선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내·외 전문 기술 교육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능력 중심의 육성, 평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제도를 통해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직구조 역시 유연성, 다양성, 신속성을 중시하는 수평적 메트릭스 조직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사업부문별로 책임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팀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팀제의 운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팀웍을 통해 내부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완결성을 갖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나오는 기자에게 건네는 양희식 대표이사의 인사 속에, 세계를 바라보는 동사의 로고처럼 무한한 미래와 성공에 대한 확신,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신념이 깊이 배어 났다. ■